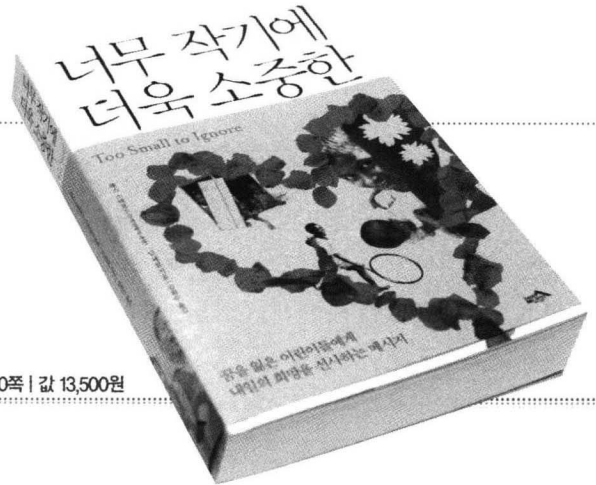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 일깨우는 큰 울림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

글_김영미 베이스캠프 편집장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 웨스 스탠포드 지음 | 김희수 옮김 | 베이스캠프 | 440쪽 | 값 13,500원

연일 신문지상에서는 ‘집값’과 관련된 기사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대한민국 대표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를 위풍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책은 재테크 서적이다. 그래서 아동인권 운운하는 책을, 가난과 학대 속에서 죽어가는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낸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지! 선거철이 되어도 정치인들은 ‘한 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관심을 쏟지만 그 ‘한 표’가 없는 아이들은 뒷전이다.

이 책은 세계적인 아동양육 기관인 국제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의 총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체험담을 토대로 우리 모두에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1952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고아들의

참혹한 실상을 목격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처음 시작된 국제컴패션은 전후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했고, 현재는 전 세계 24개국의 어린이 80만여 명을 양육하고 있다.

컴패션이 처음 시작되어 그 수혜를 받은 나라로서 한국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배풀 만한 힘이 있다. 2003년 11월 다시 이 땅을 밟은 컴패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풍요로움을 나눠줄 것을 강권한다.

이 책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그간 간과하고 있던 ‘아이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신이 우리들 삶의 영역에 각각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할 책임을 알게 된다.

컴패션의 설립자가 개신교 목사이고 이 책의 저자 역시 선교사의 아들로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책의 내

용 역시 기독교 신앙을 전제로 전개된다. 이것이 불편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욱 설득하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은 책의 내용이 기독교만의 진리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사랑과 공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각기 특별한 인격과 재능을 가진 생명체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온갖 죄악과 시련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미처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이 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 일깨워준다.

연말이 되어 거리마다 성탄절을 알리는 소리와 풍경이 넘쳐난다. 거기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도 간간히 끼어 들려온다. 이제는 우리도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관심을 조금만 덜어 ‘너무 작아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

화가와 시인, 서로에게 가지 않은 길 《그림, 문학을 그리다》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상당히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를 키우는 각 가정의 책꽂이마다 종이접기 책 한두 권씩은 꽂혀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종이접기 책을 전문으로 만들어 온 출판사 하면 십중팔구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400여 종의 종이접기 책만을 전문으로 만들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단행본을 만들기 시작한 출판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다.

몇 달전 이런 저런 모임에서 자주 보아 오던 북촌미술관의 이승미 부관장을 사석에서 만나 얘기하던 중 '그림, 문학을 상상하다'라는 전시를 1년여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33명과 시인 20명, 소설가 21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진행이 어려움 또한 배가 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진행상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문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런 와중에 정호승 시인과 박항률 화백이 랜덤하우스중앙에서 낸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라는 시화집을

보았다. 한명의 화백과 시인이 이런 멋진 책을 냈는데 여러 문인과 화백이 함께 참가한다면 더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터라 여러모로 고민을 다듬어 가면서 위의 전시를 한결음씩 책의 형태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제목은 《그림, 문학을 그리다》라고 정했다. 부제로 '가지 않은 길...'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시인이 되었을 거라 말하고, 시인들은 여건만 허락 했으면 그림을 그렸을 거라 말하곤 한다. 그림과 시는 화가와 시인 서로에게 가지 않은 길이다.

관여하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우여곡절 끝에 전시회 오픈식 날에 맞추어 책을 나왔는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몇몇 분들도 있었고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딱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특히 임옥상 화백은 99작품을 꼼꼼히 살펴 보더니 책 잘 만들었고 잘 팔리겠다고 하시기에 잘 만든 것과 잘 팔리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는 말씀을 나

누었고 시간이 없어 작품으로 동참하지 못하신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기도 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는 재미있고 좋은 책이 나왔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다. 또한 만화가 박재동 선생님은 시의적절하게 화가들의 탈출구를 잘 만들어준 책인 것 같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많은 소설가들의 작품 편린을 읽다보니 직접 원전을 사서 읽어볼 충동을 느끼게 해 주어 고맙다고도 하고, 시집들도 꼭 사서 읽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았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일을 책으로 전환해 내는 순탄하지 않은 작업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고, 이를 만들어 내는 데는 주변 분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배려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 과연 다시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를 되돌아본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생각난다.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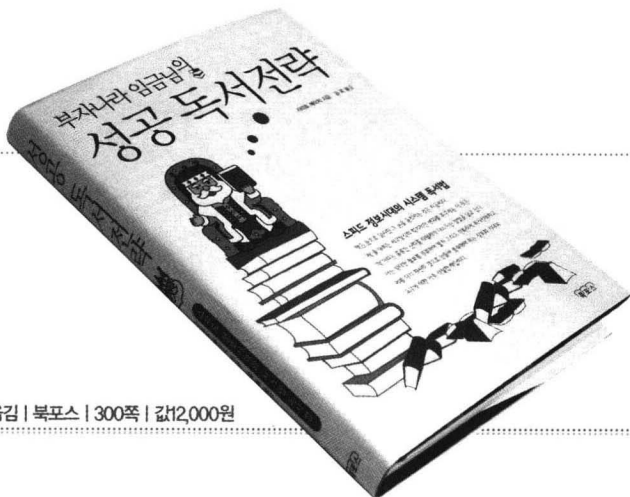
글_ 윤재환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이사

《그림, 문학을 그리다》 북경미술관 저 | 종이나라 | 175쪽 | 값 15,000원

우리 시대의 임금님들을 위한 독서의 의미와 기술

《부자나라 임금님의 성공 독서전략》

글_ 방현철 북포스 대표



(부자나라 임금님의 성공 독서전략) 사이트 이미지 지음 | 김옥 옮김 | 북포스 | 300쪽 | 값12,000원

한 손에 책을 들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임금님의 얼굴 모습이 커다랗게 그려진 이 책의 원서를 본 순간, 왠지 즐거운 예감이 들었다. '30분 만에 책 한 권 읽기'라는 부제가 불러일으키는 명쾌함 이전에, 뭘지 모를 색다름이 읽혀졌기 때문일까. 일천한 일본어 실력을 믿고서 목차를 읽어나가다 보니, 그것은 정보의 왕, 지식의 왕이 되어야 하는 형벌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친절하면서도 독특한 가이드북이었다. 얼마나 신선한 발상인가. 나는 임금님이요, 내 앞에 놓인 책들은 마음껏 부러도 좋을 신하라니!

저자의 독서법을 참고하여 원서를 스키밍(Skimming) 해본 결과, 이 책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고, 세상과 소통하는 책을 만들자'라는 북포스의 책 만드는 마음에 실질적인 독서의 기술을 멋들어지게 더해줄 보배 같은 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뇌과학을 연구하는 의사이자 독서법 전문가라는 정보가 한층 기대를 더하게 했다.

이 책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꽤 많았다

는 후문을 접하기도 했지만, 부자나라 임금님은 우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주었다. 평소 많은 책을 통해 번역의 묘를 발휘해 오신 김옥 선생님께 번역을 의뢰하고, 원고를 기다리는 동안의 조바심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임금님과 어리석은(?) 클레이저의 문답식 독서법 강의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한껏 안겨주었다.

물론 이 책에는 '한 권의 책이기에 30분만' '30분을 프리뷰, 포토리딩, 스키밍의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20%의 핵심을 읽고 80%를 얻는' 구체적인 독서법도 당연히 등장한다. 하지만 속도경쟁이 목적은 아니다. 문학작품의 감동을 음미하고 사상의 향기에 취하는 시간, 정신의 휴식도 없어서는 안 될 자산들이다. 그리하여 읽은 만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아릿아릿한 지식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임금님처럼 책을 읽었으면 이제 임금님처럼 살자는 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이다.

“내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던져버리자.

나는 임금이고 너는 신하일 뿐, 너는 단지 내게 필요한 것만 전해주면 된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이너스 사고다. 임금님의 속독술을 익힌 사람은 책을 만날 것이다. 한 권을 읽는 것은 두렵지만 몇 권을 만나는 것은 두려울 것도 없고, 또 귀찮지도 않다. 이것이 임금님의 속독술을 발판 삼아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될 플러스 사고다. 즉, 속독술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의식이다.”

부자나라 임금님이 “독서에 관한 자기만의 철학과 훌륭한 방법론을 체득한 전문가”임을 꿰뚫어보신 독서광 안상현 선생님의 추천사를 받는 즐거움도 컸다. 내용에 따라 수십 가지 표정의 임금님 얼굴을 그려준 화가 타라 지로의 아이디어와 재능에 감탄하면서 편집하는 과정 또한 유익했다. 저자의 글솜씨를 제대로 버무려냈는지 걱정스럽지만,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끝없이 자극받는다든 독자들은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추천**

인간이 만든 신의 책, 성서 그 기록과 번역과 출판의 역사 《성서의 역사》

성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책이다. 인쇄술이 도입된 이래 그 어떤 텍스트보다 많이 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매년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성서는 글로 쓰인 저작들 중 가장 널리 유통되고 가장 많이 읽혔으며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은 문화와 언어,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각각의 시대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성서를 재단장해 왔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 판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성서의 역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의 근원이자 그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는 성서가 어떻게 공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변천해 왔는지(히브리어판과 그리스어판 그리고 이를 종합해 나온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서, 70인역 성서, 마르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성서, 킹 제임스 판 성서,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홀리바이블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각종 호화로운 도판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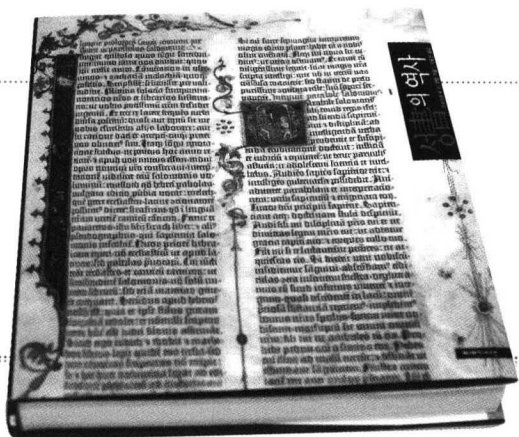
놓는다. 채색 필사본과 고문서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는 성서를 복음의 관점이나 신학적 논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성서 텍스트의 판본들을 살펴보는 일은 그 정통성을 따지는 수준의 논의를 넘어 서 저술과 번역, 출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 된다.

특히 편집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점이라면 바로 성서의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 변천 과정을 보여 주는 책의 역사이다. 종이의 기원인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오늘날 책의 최종 형태인 낱장 코덱스로 이동(이는 당시에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대개 가난했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피지 코덱스, 본문의 레이아웃이 4단에서 3단, 2단으로 변천해 가는 과정, 대문자 서체에서 소문자 서체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 인덱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과

절이 채택되는 과정, 목차가 생성되는 과정, 성서의 해석에 필요한 주석을 달게

되면서 인용 부호 등이 도입되는 과정 등 책장을 넘기다 보면 ‘책의 역사’가 눈앞에 절로 그려진다. 특히 15세기에 중반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이 담긴 독일어 번역본 성서가 널리 보급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출판의 사회적 성격과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그 옛날 수많은 이름 없는 필경사들과 인쇄공들과 제본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성취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하고 편집, 제작하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특히 책의 퀄리티를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취지 하에 코에디션 방식을 취했는데, 한국에서는 먹판만 제작해서 저작권사 측에 보내고 몇 차례 감수를 받는 등 작업물이 오고 가는 데만 수개월을 소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땀 흘리며 만들었다. **✎**



《성서의 역사》 크리스토퍼 드 하멜 지음 | 이종인 옮김 | 미메시스 | 352쪽 | 값 45,000원

글_ 김수연 열린책들 인문팀장